

# 일기를 통해 본 한말 일제시대 양반소지주의 활동공간 : 柳瑩業의 『紀語』를 자료로

Activity Spaces of Yangban Landlords during the Colonial Era  
-Based on the <Kieo> written by Ryu Hyeong-eop

정치영(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cyjung38@korea.ac.kr)

본 연구는 한말에서 일제시대에 이르는 시기를 살았던 柳瑩業이 38년 동안 쓴 생활일기인 『紀語』를 통하여 양반소지주의 일생에 걸친 활동공간(active space)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기내용 중에서 외출기록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류형업의 일생을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라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등 세 시기로 나누어 활동공간의 복원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류형업의 공간 활동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활동공간 역시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청년기의 활동공간은 자신이 살고 있던 토지면 내 지역, 그리고 거주지를 중심으로 대략 반경 6km 이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 머물렀고 특정한 장소에 편중되었으나, 장년기에는 활동공간이 구례군 전역의 다양한 장소로 상당히 확대되었다. 공간 활동이 가장 광역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중년기로, 특히 구례군 바깥 지역에서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공간 활동의 목적도 나이가 들수록 다양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기에는 산소관리를 위한 외출횟수가 전체의 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외출목적이 편중되었다. 장년기에도 산소관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하였으나, 행정기관 방문, 재산관리 등도 중요한 외출목적이 되었으며, 중년기에는 산소관리의 비중이 줄고 친지방문과 조문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오락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에 따른 공간 활동 목적의 변화에는 집안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 변화, 시대상황의 변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거주지를 중심으로 반경 7-8km 내의 외출은 당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의 외출은 대개 숙박을 포함하였다. 특히 구례군 바깥으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전부 하루 이상 숙박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일일생활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숙박을 포함한 외출도 나이가 들수록 그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목적 및 목적지도 다양해졌다. 중년기에는 이러한 장거리 외출에 기차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에 따라 청·장년기에 비해 평균 이동거리는 더 길어졌으나 일정은 오히려 단축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